

시선의

2021 경기 예술교육활동가 문화다양성 워크숍

이동

2021

10:00 - 12:00
14:00 - 16:00

8.31(화) - 9.2(목) ^{3일간}

2021 경기 예술교육활동가 문화다양성 워크숍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은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을 위한 워크숍으로 차별과 편견을 가로지르는 6개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 진행기간** 2021년 8월 31일(화)~9월 2일(목) 오전 10시~오후12시 / 오후 2시~4시, 3일간 총 6회 진행
- 진행방식** 온라인 워크숍(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활용)
- 신청대상** 해당주제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교육)활동가
- 신청인원** 회차당 선착순 80명 / 중복 신청 가능하나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접수해 주세요.
※ 8월 27일(금) 오후 5시 이후, 신청 확정 및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ggarte.ggcf.kr) 공지사항 확인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화) ~ 8월 26일(목)
-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팀 ☎ 031-853-9827

세부내용 ※ 중복접수 가능하나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접수해 주세요.

일시	주제	내용	강사
8월 31일(화) 오전 10시~12시	누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었을까?	아방가르드 관점에서 서양미술사를 살펴봄으로써 권력과 재현 방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현대의 대중매체와 시각문화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충열
8월 31일(화) 오후 2시~4시	마주 보지 말고 우리 옆으로 와서 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라는 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게임과 유튜브에 사로잡힌 아이들이지만, 이들 역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존중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만나 온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요즘 아이들'이 아닌 성장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종미
9월 1일(수) 오전 10시~12시	문화 간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	이주민 참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문화다양성 활동은 자주 벽에 부딪히고 실패합니다. 사회통합에 중점을 둔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간 대화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과 불통 사이를 짚어 봅니다.	이란주
9월 1일(수) 오후 2시~4시	예술의 의미와 배리어프리 공연	2021년 장애예술계에서 시도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중심으로 장애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한 우리 시대의 고민을 나누어 봅니다.	김원영
9월 2일(목) 오전 10시~12시	소수자들은 왜 축제를 하며 저항할까?	퍼레이드와 영화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은 왜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축제를 선택했을까요? 거리를 행진하며 즐겁게 춤을 추며 저항할까요? 경계를 허물고 사랑과 인권을 외치는 문화적 실천이자 기발한 투쟁 방식으로서의 퀴어문화축제의 역사를 함께 살펴 봅니다.	한채윤
9월 2일(목) 오후 2시~4시	먼지 쌓인 노트, 먼지 쌓인 시간 : 병이나 장애의 증상으로 여겨지던 창작물에 대하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전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의 참여 작가들을 중심으로, 미술제도와 무관하게 오직 자신의 내부에 몰입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을 지속해온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작가들의 다양한 창작방식을 소개합니다.	김효나

진행 |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최선영(유구리최실장), 안태호(한국문화정책연구소),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강사이력

이충열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전시기획자

시각문화를 바꾸는 <스튜디오 여러>대표, 페미니스트 미술가 그룹 <No New Work>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닮았을까'

김종미 작가

198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기차길 옆 작은 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나고 있으며, 현재 아동청소년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 '팽이부리말 아이들', '모두 잠언' 등

이란주 이주민권활동가

이주민과 연대하는 활동을 하며, 모든 시민이 어울어지는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서 : '말해요 찬드라', '로지나, 노지나' 등

김원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

제로셋 프로젝트 / 극단 애인(객원)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등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서울퀴어 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 '여자들의 섹스북' 등

김효나 소설가 문화예술기획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 초청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 '2인용 독백', '초와 그녀' 등